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5년 4월 3일(목)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2025년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제네시스,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 디자인 제시

〈엑스 그란 쿠페〉·〈엑스 그란 컨버터블〉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

- 브랜드 10주년 맞이해 새로운 플래그십 비전 담은 콘셉트카 2종 세계 최초 공개
... 최상위 세단 G90 기반으로 럭셔리 정수 보여주는 쿠페 및 컨버터블 콘셉트 모델
- 모터스포츠 진출 의지 담은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국내 최초 공개
... 자체 개발한 신규 V8 엔진 앞세워 내년부터 WEC 챔피언십 출전 공식화
- ‘새로운 혁신을 향한 도약’ 주제 아래 고객 향한 환대와 미래 포부 담은 전시 구성
- 차량 전시 외에도 브랜드 비전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존 운영 예정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2종의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며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네시스는 3일(목)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엑스 그란 쿠페 콘셉트(X Gran Coupe Concept, 이하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X Gran Convertible Concept, 이하 엑스 그란 컨버터블)’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만의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을 집약한 ‘GMR-001 하이퍼카(GMR-001 Hypercar)’의 디자인을 국내 최초로 전시했다.



PRESS RELEASE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제네시스는 ‘Unfold a new era of Genesis(제네시스, 새로운 혁신을 향한 도약)’를 주제로 브랜드의 지난 10년을 함께한 국내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포부를 밝혔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제네시스는 출범 이후 10년 간 전세계 130만 명이 넘는 고객들과 브랜드 고유의 감성과 가치를 나눠왔다”며,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고성능 기술력과 미래 럭셔리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은 다양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플래그십을 새롭게 정의하는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제네시스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은 플래그십 세단 G90를 기반으로 완성된 럭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2도어 콘셉트 모델이다.

두 모델은 제네시스가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디자인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새로운 럭셔리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네시스디자인센터장 윤일현 상무는 “오늘 선보인 두 모델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플래그십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서로 다른 영감에서 출발한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은 모두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두 모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된 전면부의 두 줄 그래픽, 낮게 깔린 캐빈과 루프라인,



PRESS RELEASE

매끄러운 실루엣을 통해 플래그십다운 존재감과 조형미를 동시에 갖췄다.

전면부에는 두 줄 헤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돼 제네시스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했다. 그릴 내부에는 금속 끈을 엮은 듯한 다이아몬드 패턴의 3D 메시가 적용돼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완성한다.

측면부는 길게 뻗은 보닛과 넓게 부풀린 펜더로 차체의 볼륨감을 강조했으며, 프레임리스 구조의 긴 도어와 하나의 유리창처럼 이어진 대형 DLO(Day Light Opening)를 적용함으로써 실내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담한 실루엣을 구현했다.

특히 컨버터블 모델은 벨트라인을 후면부까지 연장해 소프트탑 루프와 차체를 분리하고,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리어 캐릭터 라인을 더해 유려하고 우아한 비례감을 강조한다.

후면부는 슬림한 테일램프와 차체에 매립된 레터링 엠블럼으로 매끄러운 일체감을 주며, 테일게이트 위에 스포일러 엣지를 추가하고 사각형 듀얼 머플러와 측면으로부터 이어진 크롬라인을 조화롭게 연결해 차량의 스포티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아울러 차량 표면 안쪽에 숨겨져 있다가 필요시 돌출되는 히든 타입 후방 카메라와 손동작만으로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는 제스처 인식 방식을 채택하는 등 기술적 디테일도 섬세하게 담아냈다.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의 외관에는 각각의 콘셉트에 맞춰 지중해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러를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PRESS RELEASE

엑스 그란 쿠페는 올리브 나무에서 모티브를 얻은 짙은 녹색을, 엑스 그란 컨버터블은 이탈리아의 고급 와인에서 영감을 받은 짙은 버건디 색상을 적용해 플래그십만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품격을 더했다.

실내에서는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한 G90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각 모델의 콘셉트를 반영한 섬세한 디테일을 곳곳에 추가했다.

기존 G90 클러스터 좌우에 나뉘어 있던 날개 형상을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해 운전자 중심의 몰입감을 강화했으며, 스티어링 휠 하단에는 정밀한 패턴을 새긴 알루미늄 스포크를 추가해 시각적 균형감과 조작성을 모두 높였다.

1열 시트에는 벨트 일체형 구조와 후석 송풍구, 일체형 후석 디스플레이가 통합돼 기능성과 디자인의 완성도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패들 시프트와 송풍구, 센터 콘솔 등 곳곳에 고급 크리스털 소재를 사용해 자연광에 따라 다채로운 빛의 흐름을 연출하도록 했으며, 바닥 매트에는 올리브 잎을 형상화한 퀼팅 마감을 더해 차별화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엑스 그란 쿠페의 실내에는 올리브 그린과 코냑 컬러가 조합된 천연가죽을 적용했다. 이 가죽은 올리브 오일을 정제한 뒤 발생하는 폐수를 활용해 인체에 해로운 크롬 성분 없이 친환경적으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실제 올리브 원목을 적용했으며, 도어에는 올리브 잎 패턴을 새긴 특수 백라이트 그래픽을 더해 따뜻하고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엑스 그란 컨버터블은 고급 와인용 포도를 연상시키는 푸른 빛의 천연가죽으로



PRESS RELEASE

실내를 가득 채우고, 특유의 광택을 지닌 유칼립투스 원목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진출의 상징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전시

제네시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브랜드의 내구레이스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GMR-001 하이퍼카는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의 결합을 통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제네시스의 무한한 가능성과 고성능 럭셔리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제네시스 마그마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GMR-001 하이퍼카는 독특한 블랙 컬러 마감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통해 민첩한 차량 성능을 강조한다.

우선 차량 전면에서 측면까지 이어진 제네시스 고유의 두 줄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기역학적인 구조와 볼륨감을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장소와 각도에서든 누구나 쉽게 차별화된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면부터 후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치형의 '파라볼릭 라인'을 적용해 차량에 강인함과 안정감을 더한다. 후면에는 액티브 스포일러를 장착해 고속 주행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공개와 함께 내구 레이스 출전 계획을 밝히고,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도전 의지를 명확히 했다.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내년부터 두 대의 차량으로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¹에 출전하며, 2027년부터는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WeatherTech SportsCar Championship, WTSCC)’²에도 추가로 두 대를 투입해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하이퍼스피드(Hyperspeed)’라는 철학 아래 모터스포츠를 위한 엔진과 차량 개발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네시스는 자체 설계한 신규 V8 엔진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레이스카 제조사 오레카(Oreca)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개발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설적인 드라이버 잭키 익스(Jacky Ickx)를 비롯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드라이버 안드레 로테러(Andre Lotterer), 피포 데라니(Pipo Derani)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프랑스 폴 리카르 서킷(Circuit Paul Ricard) 인근의 전용 시설에서 공동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릴 아비테불(Cyril Abiteboul) 현대모터스포츠법인 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은 “내구 레이스는 강한 회복 탄력성과 완벽한 실행력을 요구하는 무대로,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GMR-001은 제네시스가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가능성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EC):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 내구 레이스 선수권 대회. 르망 24시, 스파 6시 등 경기가 열린다.

²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WTSCC): 국제모터스포츠협회(IMS)가 주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내구 레이스 시리즈. 데이토나 24시, 세브링 12시 등 경기가 열린다.



PRESS RELEASE

한편 제네시스는 13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1,200m²(약 363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엑스 그란 쿠페 및 엑스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와 ▲GMR-001 하이퍼카 1:2 스케일 모델 ▲GV60 마그마 콘셉트 ▲GV60 부분변경 모델 ▲GV80 쿠페 블랙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G90 등 총 9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더불어 ▲제네시스 블랙 라인업에 적용된 전용 소재와 부품을 전시하는 ‘블랙 존(Black Zone)’ ▲ 제네시스 마그마의 디자인 철학과 모터스포츠 도전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마그마 존(Magma Zone)’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접객 철학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손님 라운지(SON-NIM Lounge)’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전시장을 찾은 고객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비전과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는 유명 셰프 샘 김(Sam Kim)과 협업해 제네시스 오너를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특별 디저트를 제공하고, 시승과 미식을 결합한 ‘제네시스 고메트립(Genesis Gourmet Tri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GV70 전동화모델을 시승하고 샘김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프라이빗 다이닝을 체험할 수 있다. [끝]

<사진설명> 제네시스,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엑스 그란 쿠페>·<엑스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

제네시스는 3일(목)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엑스 그란 쿠페 콘셉트(X Gran Coupe Concept, 이하 엑스



PRESS RELEASE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X Gran Convertible Concept, 이하 엑스 그란 컨버터블)’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만의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을 집약한 ‘GMR-001 하이퍼카(GMR-001 Hypercar)’의 디자인을 국내 최초로 전시했다.

사진 1) (왼쪽부터) 제네시스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사진 2) 제네시스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엑스 그란 쿠페

사진 3) 제네시스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엑스 그란 컨버터블

사진 4) 제네시스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사진 5~6) (왼쪽부터) 제네시스 엑스 그란 쿠페 엑스 그란 컨버터블

사진 7~9) 제네시스 엑스 그란 쿠페

사진 10~12) 제네시스 엑스 그란 컨버터블

사진 13) 2025 서울모빌리티쇼 제네시스 부스 현장 사진

사진 14) (왼쪽부터)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현대차그룹 CDO 겸 CCO 루크 동커볼케 사장,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제네시스디자인센터장 윤일현 상무, 현대모터스포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괄

사진 15) (왼쪽부터)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현대차그룹 CDO 겸 CCO 루크 동커볼케 사장,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제네시스디자인센터장 윤일현 상무, 현대모터스포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괄

사진 16) (왼쪽부터) 제네시스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사진 17)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 18)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제네시스디자인센터장 윤일현 상무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 19)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현대모터스포츠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



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PRESS RELEASE

싱 총감독 시릴 아비테볼이 발표하는 모습



PRESS RELEASE

제네시스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가내역

행사명	2025 서울모빌리티쇼 (Seoul Mobility Show 2025)	
일정	전체일정	2025년 4월 3일(목) ~ 4월 13일(일)
	언론공개일	2025년 4월 3일(목)
	일반공개일	2025년 4월 4일(금) ~ 4월 13일(일)
제네시스 보도발표회	2025년 4월 3일(목) 11:55 am ~ 12:15 pm	
전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1~5홀	
면적	제네시스 부스 약 363평 (1,200m ²)	
전시내역	콘셉트카, 양산차 등 총 9대 전시	
	콘셉트카 (4대)	▲엑스 그란 쿠페 ▲엑스 그란 컨버터블 ▲GMR-001 하이퍼카 ▲GV60 마그마
	양산차 (5대)	▲GV60 부분변경 2대 ▲GV70 전동화 부분변경 1대 ▲GV80 쿠페 블랙 1대 ▲G90 1대
주요행사	▲ 엑스 그란 쿠페, 엑스 그란 컨버터블 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 ▲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국내 최초 공개	